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누구에게로 보내고 계십니까?*
 -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1. 가라!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두절미하고 현재의 익숙한 곳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했지만, 또한 모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히 11:8).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일단 나시고 봐야 알게 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같이 가자'는 하나님의 초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의 유일한 인도자이며, 동행자이십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이자 복의 모델로 부름 받았습시다.

교회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곧 교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평안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안에서 더 완전한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저주로 가득한 땅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먼저 복을 부여주셔서, 세상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에 보냄 받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입니다.

2. 약속과 현실 사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장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에 놓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위대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고전 1:26-29).

가난한 땅의 현실도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무슨 대단한 수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온 식솔을 이끌고 이 먼 길을 떠나 온 아브라함의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그를 부르시고 그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복이자,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누리게 될 복의 실체였습니다. 현실로부터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선명한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는 것입니다.